

축덕들, 주말은 잠 못 드는 밤

〈축구 덕후〉

이번주부터 잉글랜드→프랑스→스페인→독일 리그 순차 개막
메시·그리즈만·요렌테 등 별들의 전쟁...손흥민·황의조 활약 기대

‘축덕’(축구마니아)들을 주말 밤을 설레게 할 2019-2020시즌 유럽축구가 시작된다.

오는 10일 새벽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프랑스 리그앙을 시작으로 17일에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와 독일 분데스리가가 개막 축포를 울린다. 이탈리아 세리에A는 다소 늦은 24일에 출발한다.

프리미어리그는 오는 10일 새벽 4시 리버풀과 노리치의 개막전으로 시작한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제외한 모든 대회서 우승한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는 리그 2연패에 도전한다.

맨시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부터 제2의 세르히오 부스케츠를 리노 로드리(23·스페인) 영입했다.

지난 시즌 최고의 한해를 보낸 리버풀은 이번 시즌 별다른 영입은 없었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주역들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리버풀은 클럽 감독의 개편프레싱(전방에서 강도 높게 압박)을 앞세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범 이후 첫 우승에 도전한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는 이번 시즌 역시 바르셀로나-레알 마드리드-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3파전이 예상된다.

리오넬 메시와 앙투안 그리즈만을 앞세운 바르셀로나는 3연패를 달성을 노린다.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천문학적 이적료를 투자해 주앙 펠릭스, 마르코스 요렌테, 키어런 트리어, 마리오 에르모소를 영입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앙투안 그리즈만과 로드리를 보냈지만 우승에 도전한다.

특히 벤피카에서 1683억원에 영입한 주앙 펠릭



메시 황의조

스(포르투갈)는 리오넬 메시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다.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3연패가 유력시 되는 가운데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가 우승을 놓고 도전한다. 유벤투스는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9연패를 노린다.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은 차범근이 보유한 한국인 유럽 무대 최다골 경신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까지 총 116골을 작성한 손흥민은 차

범근이 보유한 한국인 유럽 무대 최다골 기록(121골)에 5골차까지 좁혔다. 여기에 2016-2017 시즌 작성한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21골) 기록 경신도 노린다.

다만 손흥민은 지난시즌 37라운드에서 퇴장으로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이번 시즌 1-2라운드에 결장한다.

일본 J리그 감바 오사카에서 뛰던 황의조가 프랑스 리그앙 지롱댕 보르도로 이적해 처음 유럽 무대를 밟았다.

파울루 소사 보르도 감독은 중국리그에서 감독을 한 경험이 있는 등 아시아 축구에 능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시즌 스타드 드 랭스에 입단한 석현준도 두 번째 시즌을 맞아 본격 활약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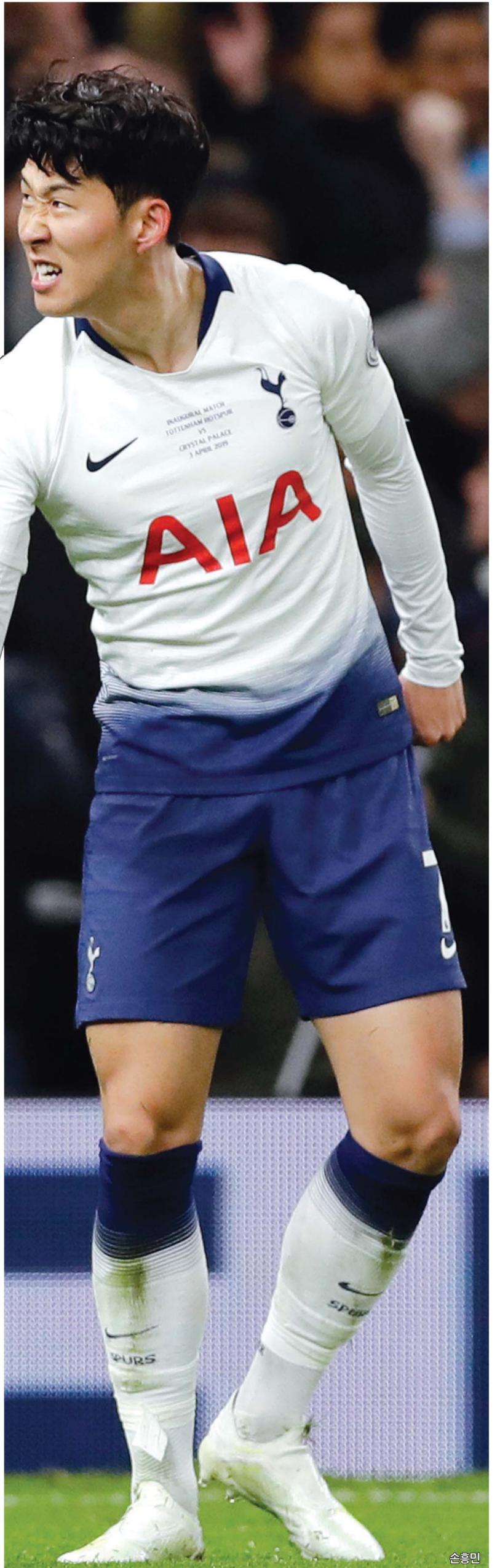
리그앙에서 활약하던 권창훈은 독일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에 새 동지를 틀었다.

또 바이에른 뮌헨에서 유망주로 인정받던 정우영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했다.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8시즌째를 맞는 ‘배터랑’ 기성용(뉴캐슬)은 팀내에서 힘찬 주전 경쟁이 예고된다.

세리에A 헬라스 베로나에서 세번째 시즌을 맞는 이승우도 ‘만년 유망주’에서 탈피해 결과물을 보여줘야 할 때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손흥민

외인 투수 부진에 한숨 깊은 KIA



월랜드·터너 올 시즌 43경기 11승 합작 그쳐
KIA 마운드 문턱 낮아져 하위권 못 벗어나
터너, 오늘 마지막 시험대...마운드 운용 변화 예고

고민 많은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듀오’가 갈림길에 섰다.

KIA의 올 시즌 외국인 농사는 ‘흥작’에 가깝다. 세 외국인 선수를 전면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먼저 해를베이커가 지난 5월 10일 올 시즌 1호 퇴출 외국인 선수가 됐다. 대체 선수로 투입된 터커가 분전하고 있지만 두 투수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가득하다.

외국인 ‘월투펀치’ 월랜드와 터너는 43경기에서 11승을 합작하는데 그쳤다. 외국인 투수들의 안정감이 떨어지면서 KIA는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월랜드가 7월 한 달 25.2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2.45, 3승 1패로 반전에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8월 시작이 좋지 못했다.

지난 6일 LG와의 홈경기에 투입된 월랜드는 3회초 연속 안타와 연속 볼넷으로 아웃카운트를 더하지 못하고 강판당했다. 성적은 2이닝 8피안타

4볼넷 3탈삼진 9실점. 월랜드가 일찍 무너지면서 경기는 일방적인 싸움으로 전개됐고, 4-17 대패로 끝났다.

한주를 여는 첫 경기부터 선발이 일찍 무너지면서 KIA는 4승 1패를 수확했던 지난주의 상승세를 잇는데 실패했다.

월랜드에 이어 8일에는 터너에 눈길이 쏠린다. 터너는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복귀전’을 치른다. 터너는 지난 7월 27일 두산과의 후반기 첫 등판에서 3.1이닝 9피안타 1볼넷 1탈삼진 8실점(7자책점)으로 시즌 10번째를 기록했다.

또 로테이션상 올 시즌 3전 전패(평균자책점 11.12)의 NC를 만나게 되면서 지난 7월 29일 아예 엔트리에서 제외됐었다.

터너는 완투승의 기억이 있는 한화를 상대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KIA 입장에서는 두 투수의 성적도 성적이지만 ‘기 살리기’에도 고민이 많다.

KIA 벤치는 두 투수의 성적을 끌어내기 위해

맞춤형 전략을 쓰고 있다.

월랜드가 포수 김민식과의 경기를 선호하면서 등판할 김민식과 배터리를 이루도록 배려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11일 삼성전을 시작으로 17일 롯데전, 31일 SK전까지는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 6일에는 월랜드의 조기 강판과 함께 김민식도 동시에 백용환으로 교체됐다.

터너를 위해서는 ‘팀’을 맞춰주고 있다. 유독 약했던 NC전 등판을 거르게 하고 2.11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을 기록한 한화전3에 맞춰 다시 선발 기회를 준 것이다.

“포수와 팀도 맞춰준다”는 박흥식 감독대행의 한탄이 나올만하다.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KIA의 ‘가을 잔치’ 확률이 높지 않고, 더 먼 미래를 위한 육성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8일 경기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젊은 마운드’의 KIA가 굳이 터너의 선발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외국인 선수 교체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월랜드도 7월에 가능성은 보여주시는 했지만 확실한 믿음을 준 것은 아니다.

“특별 관리”를 하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두 외국인 선수의 성적, 8일 한화전 결과에 따라 KIA 마운드 큰 틀이 달라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옷 3번 갈아입었어요” 선수들 더위와 싸움

▲호수비가 아니라 실수였어요 = 이창진은 올 시즌 KIA가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 외야수’다.

지난해 오준혁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KT에서 이적한 그는 스프링캠프에서부터 눈길을 끌며 올 시즌 KIA 야수진의 새 전력이 됐다.

특히 처음 맡는 중견수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반기에도 몇 차례 멋진 슬라이딩 캐치를 선보였던 이창진.

하지만 이창진은 “호수비가 아니라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이다. 실수다”고 설명했다. 이창진은 “빨리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라 이딩해서 잡은 경우가 있다”며 “중견수 자리는 투구와 타자의 반응을 보기 때문에 어디로 공이 올지 예측하기가 쉽다. 처음 해보는 포지션인데 재미있다”고 말했다.

▲옷을 세 번 갈아입었어요 = 선수들의 허를 내두르게 하는 더위다.

7일 광주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KIA는 컨디션 관리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투수들은 실내 웨이트와 기본 훈련 등을 한 뒤 외야에서 짧고 굵게 러닝과 캐치볼 등을 훈련을 하고 있다. 외야 훈련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더위는 피할 수 없다.

7일 투수조에서 가장 늦게까지 훈련을 하고 들어온 임기영은 “와”하는 한숨 소리와 함께 하늘을 가리키면서 굵은 땀을 흘렸다.

코치들도 더위와 싸우고 있다. 이날 배팅볼 투수 노나넨 김상훈 배터리 코치는 “(땀 때문에)

옷을 세 번 갈아입었다”며 웃었다.

▲주자 있으면 더 집중력이 생겨요 = 주자가 있으면 더 경기가 잘 풀린다는 박찬호다.

올 시즌 KIA의 ‘깜짝 스타’ 박찬호는 득점권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경기에서도 타점을 수확하는 등 득점권에서 0.351의 타율로 38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박찬호는 “주자가 있으면 괜히 더 집중이 된다”며 “완벽한 폼으로 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 입장에서 주자가 있을 때 무조건 안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득점권 타율이 0.351이다”고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